

하안거 결제법어(요약)

전문은 buddhanews.com에

구년 동안 소림굴에서 허송했으니 어찌 그 자리에서 한 마디 전한 것만 하리오. 앞니에 털 낳던 말 오히려 당연하니 돌장승도 사씨(謝氏)네 배를 밟아 깨뜨리네.

조주(趙州) 선사에게 어떤 남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 오신 뜻입니까?" "앞니에 털이 뜯는 것이니라."

계미년 하안거 결제를 맞이하여 '조주판치(趙州板齒)' 공안을 가지고 한 마디 하고자 합니다. 이 공안 역시 예로부터 잇발 조차 들어가지 않는 어려운 화두 중의 하나로 선가에 알려져 있습니다. 불법의 대의를 물으니 조주 스님께서는 앞니에 털이 낳다고 대답합니다.



조주스님은 '고불(古佛)'로 불릴 만큼 백이십살까지 사신 까닭에 치아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가 있었는지 치아에 대한 법문이 더러 있습니다. '판치생모'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진부(鎭府) 태수가 나이가 드실 대로 드신 조주선사에게 치아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늙으신 연세에 치아가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결제 맺음 없이 맺어야

법전 스님(조계종 종정)

갈면서 불법의 대의를 설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겠는가? 나도 이를 동안 벼를 심었는데 역시 대단한 법문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말씀하였습니다. "달마대사는 없으나 없다."

치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치아라는 뜻이 아니라 불법의 진수라는 의미와 통하게 됩니다. 불법의 정수를 체득했다는 의미로 알아들어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의 안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금니 한 개 뿐입니다." "그럼 음식을 어떻게 씹습니까?" "한 개 뿐이지만 차근차근 씹지요." 양기 방회(楊岐 方會) 선사께서 상당하여 말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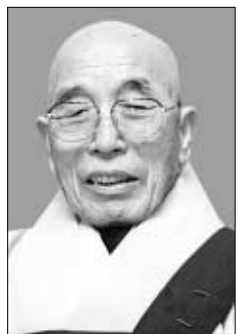
"백장(百丈) 스님은 불을 들고 밭을 갈면서 불법의 대의를 설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겠는가? 나도 이를 동안 벼를 심었는데 역시 대단한 법문을 들을 수 있었다."

판치노한서래후(板齒老漢西來後)에 무한평인피륙침(無限平人被陸池)이라고 했습니다. 판치노한, 즉 달마대사께서 서역에서 온 이후로 무수한 사람들이 속임을 당해왔다는 말입니다. 급변 하안거에 결제대중들은 판치노한의 말에 속지 말고 열심히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조주판치' 공안을 들고서 구순(九旬)이 지나가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당장 이 자리에서 결판 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공부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결제를 할 때에는 맺음 없이 맺어야 합니다. 그러한 진정한 맺음이라야 제대로 된 결제라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앉아 있어도 앉을 없이 앉아 있고, 아무리 머물러 있더라도 머문바 없이 머문다면 시시처처(時時處處)에서 참으로 제대로 된 결제가 될 것입니다.

몸은 형상만이 아니라 진리는 치아에서 나오리라. 침묵의 문 안에 우리가 떨어지니 샅된 스승은 치아를 잃었구나.

들숨-날숨 천지와 통하네

월야 스님(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부처님의 도는 넓고 텅비어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문 없음이 해탈의 문이며 마음(意) 없음이 사람의 마음이 됩니다. 만경관문의 쇠사슬을 끊은 자리에 그 무엇을 세워 진실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을 생사를 일으키는 근본이며 고요함은 혼침에 빠지는 고향인 바 그 둘을 모두 끊으면 아무 것도 없는데 떨어지고 둘 다 받아들이면 불성을 더럽히게 됩니다.

사회대중(時會大衆)은 들으라.

동산선사(洞山禪師)가 참득사방학선(參得些蚌蛤禪)하여 재개양편(齎開兩片)하니 노출간장(露出肝腸)이로다. 연수여시(然雖如是)나 차도(且道)하라. 향심처(向甚處)하여 견동산(見洞山)이고. 동산선사가 방학선에 참득하여 겨우 두 겹질을 조금 열었으나 간장을 들어냈다. 그러나 자, 말해보라. 동산스님의 뱃속을 어떻게 꿰뚫어 볼 것인가? 동산스님의 뱃속에 들어가 그가 말한 '마삼근'을 직접 확인하여 시비(是非)의 인연을 제거하라.

대도허광필요지(大道虛曠必要知) 수기대답총득지(隨機對答總得之) 언하무언일시료(言下無言一時了) 일호일흡통천지(一呼一吸通天地)

등 번 대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하구나 기연따라 대부하면 모조리 일게 된다. 말 떨어지지 말없이 한순간에 깨달으니 숨 한번 내쉬고 들이쉬니 천지와 통하네. 돌(洞)

물을 움켜쥐니 달이 손에 있고...

보성 스님(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가 계정해 삼학으로 성불의 계도를 삼았으니 이 길을 떠나 성불작조(成佛作祖)한 이는 한분도 없다. 고조(古祖)가 이르되 계기(戒器)가 견고해야 정수(定水)가 청정하고 정수가 청정해야 해일(慧田)이 방편(方便)이라 하였고, 또 이르되 계(戒)의 땅이 든든해야 정(定)의 집을 지을 수 있고 정(定)의 집을 지은 뒤에야 해(慧)의 장문을 닫을 수 있다고 하였다.

고인이 이르되 차신(此身)을 불향금생도(不向今生度)하면 경대 하생도차신(更待何生度此身) 하였으니 사람 몸 받았을 때 꼭 일대사를 끝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세은(世恩)을 버리고 출가한 몸으로 금생에 일을 마치지 못한다면 시은(施恩)을 갚지 못한 죄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 힘쓰고 힘쓸 지이다.

약장심식탁오종(若將心識濁吾宗) 흡사서행각향동(恰似西行却向東) 열면면피진견월(纔輪面皮親見徹) 단단홍일상고봉(團團紅日上孤峰)

만약 알음알이를 가지고 불법을 알고자 한다면 서쪽으로 가아 되는데 동쪽으로 가고 있는 것과 같다. 부모가 낳아 준 열금 가족을 확 벗겨버리고 똑똑히 보라. 둥글고 둥근 붉은 해가 외로운 봉우리에 오를 것이다.

대중은 조석으로 예불하면서 부처의 진면목을 보았는가. 국수월재수(國水月在手) 농화향만의(弄花香滿衣)로다. 물을 움켜 쥐니 달이 손에 있고 꽃을 만지니 향기가 옷에 가득하구나. 대중이여 오늘 결제를 했지만 아무 때고 이 도리를 아는 날이 제날이니라. 갈(曠)!

누가 맑은 못에 그림자 비출꼬

원담 스님(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만공조실스님께서는 어느날 전국 제방선원에 한 글귀를 돌리셨는데 "양구(良久)도 제이구(第二句)며 창천창천(蒼天蒼天도 제이구이니 어떤 것이 제이구(第一句)인가!"라는 문제였다. 제방선원에서 많은 답이 왔으나 그 중에 팔공산 동화사의 남자가 "어찌하여 제이구를 묻지 않습니까?"라고 보내왔다. 조실스님께서 보시고 다시 반문하시기를 "내가 일찍이 제이구를 묻지 않았거늘 어찌 문는데 이르는가?" 하셨다. 그 후에는 답이 오지 않아 조실스님께서 다시 계송을 보내셨다. 동화사 산위에 독특한 병꽃이여 꽃지고 열매 익어진 후에 아름다운 미풍 기다리게 하라.

대중들은 일러보라 어떤 것이 제이구이고! 무뎠하거늘 남자가 알지 못했다. 실사 분명히 가려 낼 지라도 못구멍이 내 손에 있다. 제이구를 물으니 귀가 따갑고 묻지 않았다 하니 귀가 멍멍하다.

조실스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겠고! 먼저 제이구를 물으심은 남자로 하여금 광채를 돌이켜 스스로 반조하여 본래면목을 보게 하려 함이니 답장을 넘어 뿔을 보던 문득 소인줄 알라 털끝만치라도 어긋남이 있다면 천지가 더욱 멀어지리라. 다음에 제이구를 물으니 이것을 딴 곳에서 찾지 말라 찾으면 도리어 눈에 모래알만 보태리라.

따라서 항상 언어 밖의 소식을 묘하게 깨닫고 형상 이전(形相以前)의 실체만을 얻어야 하는데 정명(淨名)이 침묵으로써 법을 보였을 때 문수보살이 칭찬을 했고, 공생(空生)이 말없이 설법하였고, 제석천왕이 들을 없으므로 들은 것이 이것이니라. 알겠느냐!

서리찬 하늘에 담은 지고 맑은 깊었는데 누가 맑은 못 한 그림자를 비출꼬.

결제일 좋은날...차 한잔 합시다

지어 스님(태고총림 선암사 칠전선원장)



진실수행불재지(盡說修行不在遲) 금생환유후생기(今生還有後生期) 삼도일보오천겁(三途一報五千劫) 출두두래시기시(出得頭來是幾時) 수행에 늦음이 있지 않다고 모든 말을 다해놓고 금생이 지나면 후생을 기약한다 하니 한번의 삼야도가 오천겁인데 어느때 머리를 들고 나올까나.

누구나 수행함에 있어 늦고 이르다 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늦게 수행길에 든 사람은 필망하지 말고 돈독하게 정진해야 한다는 뜻이요, 일찍 수행길에 오른 사람은 자만하지 말고 세월을 헛되게 보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금생에 정진을 하다가 안되면 내생에 한다고 하고, 이 결제 동안에 못개지면 이 다음 결제에 꼭 깨친다고 미룬다면 언제 견성오도를 이루겠습니까?

태초이래 공경(空劫) 중에 올 하안거 밖에 없습니다. 오늘밖에, 이 순간 밖에 더는 없습니다. 우리의 공부는 시공이 다 별한 공부며, 전후좌우도 다 떨어져 나간 공부입니다. 우리가 조사스님과 같이 용맹 가용맹하여 이 하안거 내에 끝을 냈시다. 그렇다고 포단(蒲團)에 앉아만 있으면 답답하여 육단심만 생기니 화두의심은 놓지 말고 여묵동정간에 성성(惺惺)하게 나아가십시오.

요즘은 차를 타고 차를 만드는 때입니다. 적적요요(寂寂寥寥)한 깊은 산골 멀리 물 흐르는 소리 들리고 산새소리 맑은데 남자가 순일한 화두를 들고 차를 타고, 차를 두고 마시는 모습은 생각만 해도 이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모릅니다. 더러는 도반과 도담(道談)을 한다면 극치 중에 극치입니다. 오늘 계미년 하안거 결제일 좋은 날이니 선방 뒷마루에 앉아 차나 한잔 합시다.



사단법인 한국불교 교화원

가족을 부처님처럼...

超宗派 一佛弟子를 지향하는 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2003년 보살계 수계 법회

보살계 수계법회를 맞이하여

추진위원

귀의삼보 아홉고 불자들이어 미물도 때가 되면 어물을 벗고 금수도 때가 되면 털갈이를 하는데 사람으로 태어나 어찌 업장을 입고 그냥 가는가! 이제 지금껏 지었던 삼업적을 면제받고 새로이 살고자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계(戒)를 받아 지니고 지키며 나와 내 가족과 내 나라와 세계를 청정케 하고자 함이니 서로 암서니와 오계(五戒)를 받으십시오. 회를 면이고 복을 받으시니.....

Table with columns for roles (이사장, 이사, 주지, 배구관, 심연사, 무량사, 자비정사, 도림사, 서울교구, 봉황사) and names (정법원, 극락정사, 송암사, 흥통원, 여래원, 유마정사, 연지암, 배구관, 김정암, 배송암, 이지혜지, 백운월, 이정명, 김불암).

- 장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76 도림사 대법당
일 시 : 불기 2547(서기 2003)년 5월 27일 오후 3시
연락처 : 한국불교교화원 사무국 02-964-8044, 8085 / 도림사 02-815-6516

회원영입

超宗派 一佛弟子를 지향하는 (사)한국불교교화원에서는 서로의 마음이 같아 중생의 고뇌를 덜어주는 전법과 봉사를 함께 할 회원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사찰, 암자, 포교당, 교당을 운영하는 분으로서 입회를 원하시면 본원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7년 5월

(사)한국불교교화원 이사장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6-16 전화 02-964-8044